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(12월 3주차)

1. 해외 동향

국가	주요 동향
일본	언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2.2자로 종묘법 개정안 국회 통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정목적 : 해외에서의 일본 브랜드 품종 보호 - 주요내용 : 품종 육성자의 동의 없이, 해외로 반출될 것을 알면서 종묘 등을 양도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조항 마련 - 시행시기 : 2021년 4월 1일 ○ 종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및 한국에서 일본 품종의 농산물이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게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샤인머스켓, 고구마(베니하루카 품종), 감귤(감평 품종) 등을 언급
	유통·소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유통업체 각 사,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본격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유통업체의 인터넷 슈퍼 점유율은 2% 내외이나, 코로나 국면 온라인 식품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각 유통업체별로 인터넷슈퍼 전용 물류 시설 마련(세이유), 아마존과 업무 제휴(라이프)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 * 이온 등 대형유통업체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 주력해 왔음
미국	농식품 수출 이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 특허청(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; USPTO)은 지적재산권 소유주, 온라인 마켓, 온라인 마켓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2020년 12월 28일까지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, 관련 공지를 2020년 11월 13일 연방공보에 게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료원 : https://www.usitc.gov/press_room/news_release/2020/er112511681.htm
	유통·소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 속 소비자들의 건강 및 웰빙 제품류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육류대신 बे지버거 등 식물성 기반 제품 판매 급증 (12.10/Supermarket News) ○ 11월 미국 내 총 온라인 식료품 총 판매액은 81억 달러로 미국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 지속 성장 중(12.8/Supermarket News)
	바이어·수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S사) 올해 신고배 수입을 위해 지난 7월에 15개 컨테이너 발주 협상을 하였으나 한국 내 물량 부족으로 조달에 차질 발생 ○ (J사)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과 가루까지 수입 판매 중으로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산과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함 ○ (W사) 코로나19 이후 컵떡볶이, 컵라면 등 HMR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몰에 HMR제품 다수 입점, 판매 중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E사) 신선 딸기 수입 추진 중이나 한국 내 물량 확보 및 선적일정 예약이 어려워 애로 발생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뉴욕시 일일 신규 입원자수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병원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9.30. 재개되었던 뉴욕시 식당 실내식사를 12.14.(월)부터 다시 중지한다고 발표(12.11, 뉴욕시) ○ 캘리포니아 주정부 남가주 지역에 12. 6일 자정부터 Safer-at-home order(자택대피령)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헤어숍, 동물원, 박물관 등 해쇄, 소매점 수용인원 20%로 제한, 식당 영업 금지(배달 및 포장만 가능), 비 필수 업종 재택근무 등
바이어·수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레스토랑, 술집 등 현장영업 중단이 지속되며 외식망 공급차질 ○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수입사 순환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 실시중 ○ 수출기업과 대면 애로에 따라 신상품 취급 등 애로
E U 기타	<p>□ 주요국 동향 및 조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프랑스] 이동제한조치 해제 및 야간통금 재시행(12.15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 확진자 1만 명 대 지속하며 애초 목표(5,000명) 미달성 불구 10.30부터 시행된 이동제한조치는 해제하고 20시~6시 통금 실시(12.24 제외) - 12.15 예정되었던 영화관,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재개방은 3주 유예 - 스키장, 술집, 레스토랑은 영업 중단 지속 - 크리스마스 모임은 6인 이하로 제한 ○ [독일] 12월 들어 2만 명 대 일 확진자 발생으로 12.9부터 제재조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.10 일 사망자 604명으로 사상 최대 - 12.9부터 비필수 상업시설 영업금지, 학교 방학 1주일 연장(~1.10) - 12.24~12.26 크리스마스 연휴 사회적 접촉은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 제한 ○ [이탈리아] 주(州) 간 이동금지 및 22시~5시 야간통금 시행(12.21~1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크리스마스(12.25~26) 기간 중 도시, 마을 내 이동제한 - 레스토랑, 술집은 18시까지 현장영업 허용, 다만 고위험·위험(레드·오렌지존) 지역은 포장·배달에 한해 허용 - 12.4부터 해외여행·방문 후 귀국 시 14일 의무 자가격리 ○ [스페인] 지역 간 이동금지(12.23~1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크리스마스 모임은 10명(아동 포함)으로 제한 - 술집과 레스토랑은 지역에 따라 현재 22~0시까지 영업 중 ○ [네덜란드] 부분 봉쇄조치 연말까지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.1부터 13세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벌금 95유로(약 13만원) - 새해 폭죽 판매 금지, 불꽃놀이 시 벌금 100유로(약 13만원)

2. 통관 · 검역 이슈

국가	이슈내용				
중국	○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현황(첨부1 참고)				
			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	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(바이어 대상 의견조사)	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
	베이징 (北京)	공항	불가	-	-
	톈진 (天津)	공항	불가	-	-
		항구	불가	-	-
	상하이 (上海)	공항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50%)	1일(핵산검사X), 7일(핵산검사O)
	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50%)	1~2일(핵산검사X), 14일(핵산검사O) *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
	광저우 (广州)	공항	가능	미실시	3~4일
		항구	가능	미실시	3~4일
	칭다오 (靑島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3~4주 이상
웨이하이 (威海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2~3주 이상	
스다오 (石島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2~3주 이상	
	○ 코로나19 대응 위생관리체계 보완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로 검역본부에서 파프리카 선별장(15개소)에 대한 영상자료 촬영 후 중국에 제출하였으나, 검역 재개시기 미확정				
미국	○ 뉴저지, 롱비치 등 미국 전역 항들의 하역작업 지연(추가 요금 발생 및 대기업 위주 작업 우선)				
말련	○ 11월 말부터 말련 내 수입항 혼잡(코로나 감염 등의 이슈가 아닌 물동량 증가에 따른 단순 혼잡)으로, 평소 대비 통관에 1~2일 더 소요되며 12월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(수입업체)				

(첨부1)

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` 20.12.15)

- 상하이 푸둥공항 근로자 CV19 확진 및 확산
 - 상하이 푸둥(浦东)공항에서 11월 22일 해외발 항공기 컨테이너 장치를 통해 공항 근로자 2인 확진 판정(30일까지 확진자 총 7명)
 - 상하이 푸둥공항 관계자 총 17,719명에 대해 긴급 핵산검사 진행
- 상하이 푸둥공항 수입화물 통관 지연 발생
 - 상하이 푸둥(浦东)공항 근로자 및 관계자 7명 CV19 확진 및 핵산검사 진행으로 인한 푸둥공항 물류업무 마비로 수입화물 통관 지연 발생
 -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푸둥공항 통관 지연 및 불확실성 우려하여 상하이 푸둥공항 경유하는 냉장냉동식품 수입 업무 잠정 중단한 상황
- 상하이 항구는 수입화물 통관은 차질 없으나 입항 후 하선에 4일 소요
 - 상하이 항구의 수입산 냉장냉동식품 대상 핵산 검사 및 소독 실시로 항구 화물 적재 포화되어 입항 후 하선에 약 4일 소요(기존 1일 이내), 단 지난주에 비해 핵산검사 샘플링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통관 소요 시간 및 입항 후 하선 소요기간이 지난주 대비 감소하는 추세
 - ※ 통관 소요시간 : (지난주)3~5일→(현재)2~3일, 하선 소요시간 : (지난주)약 7일→(현재)약 5일

<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 >

지역해관		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	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(바이어 대상 의견조사)	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
베이징 (北京)	공항	불가	-	-
톈진 (天津)	공항	불가	-	-
	항구	불가	-	-
상하이 (上海)	공항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1일(핵산검사X), 7일(핵산검사O)
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50%)	1~2일(핵산검사X), 14일(핵산검사O) *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
광저우 (广州)	공항	가능	미실시	3~4일
	항구	가능	미실시	3~4일
칭다오 (靑島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3~4주 이상
웨이하이 (威海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2~3주 이상
스다오 (石島)	항구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100%)	2~3주 이상

- ※ 통관시 검사 :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(샘플 채취)
- ※ 광저우는 핵산검사는 미실시하나, 검역시 무작위 샘플링 검사비율 강화(80% 수준)
- ※ 상온 보관 식품'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